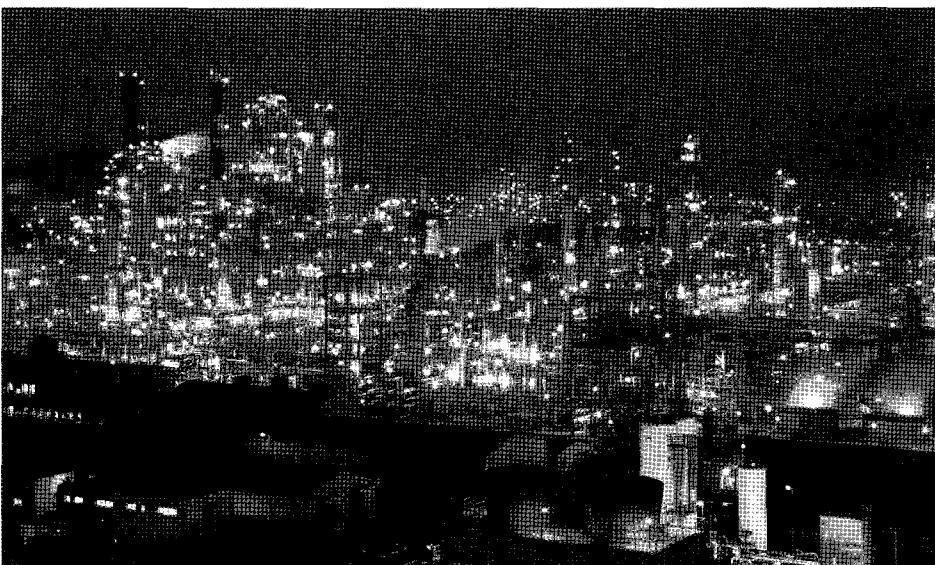


종합에너지 서비스 리더

The Leader in Providing Total Energy Service

‘GS칼텍스’ 에너지사업 다각화 추진

G
S
칼
텍
스
(주)



여수공장 전경

석유 및 석유화학 사업은 물론 지속적으로 에너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온 GS칼텍스는 지난 2000년에 “The Leader in Providing Total Energy Service”를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시가스, LNG, 전력, 유전개발, Convenience Retail, e-business 및 신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산업의 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 명실상부한 종합에너지 서비스 리더를 자향하고 있다.

석유사업

GS칼텍스는 하루 65만 배럴의 원유정제시설을 갖추고 안정적인 국내 석유제품 수급에 30%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또한 하루 8만 5천 배럴규모의 병커C유를 분해해 고부가 가치 제품인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생산하는 중질유 분해시설(RFOCC)을 지난 95년 9월에 완공했고, 98년 9월에는 하루 19만 배럴 규모의 등·경유탈황시설을 완공하여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GS칼텍스는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최고급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3,100여개의 주유소 및 300여개의 충전소를 갖추고 있다. 또한 주유소를 주유, 세차, 부분(경)정비 서비스, 윤활유 교환, 생필품 구매, 일상업무처리 등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공간으로 바꾸어 선진국형 라이프스테이션(Life Station)을 실현하고자, 1996년 국내 최초로 주유소 병설 편의점 조이마트(joyMart)를 개설하고, 1994년 부분(경)정비 프랜차이즈인 오토오아시스(auto Oasis) 사업을 전개하여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하루 6천배럴의 윤활유 제품과 연 3천톤의 그리스 제품을 생산하여 약 170여종에 이르는 고품질의 자동차용·선박용·산업용 윤활유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석유화학사업

1990년 4월 방향족사업에 첫발을 내디딘 GS칼텍스는 현재 연 200만톤에 이르는 고품질의 벤젠, 톨루엔, 자일렌, 파라자일렌 등의 석유화학 기초 원료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시설 증축을 통해 연 105만톤의 파라자일렌 생산능력을 보유, 단일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방향족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플라스틱 제품의 기초 원료가 되는 폴리프로필렌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한다. GS칼텍스는 1988년 유동층 기상 중합 방식의 Unipol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폴리프로필렌 <하이프린>을 연 18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윤활유 용기용 원료, 생수병용 원료, 발포용 원료 등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국내 폴리프로필렌 업계의 기술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37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생산 효율이 탁월한 최고

품질의 석유화학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석유화학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및 LNG사업 확대

GS칼텍스는 건실한 에너지사업 경험과 국제적인 신인도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석유 및 전력사업에 환경친화적인 천연가스사업이 융화된 종합 에너지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도시가스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현재 LNG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LNG사업의 진출을 위한 기반으로 해양도시가스 및 서라벌도시가스를 인수하였고, 경남에너지/강남 도시가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안정적인 LNG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민자발전사업 참여 및 인수 등으로 전력사업과 LNG사업의 시너지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GS칼텍스는 산업지원부로부터 내인가를 받은 LNG 직도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LNG터미널 건설과 LNG도입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08년 이후 여수공장 정유설비 유탈리티 공급용 및 GS파워 등의 전력생산용으로 사용될 LNG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력사업 확대

GS칼텍스는 2000년 9월에 GS파워(주)를 설립하여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매각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95만 kW규모의 안양/부천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설비를 인수,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구매계약을 통하여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있으며, 발전소와 자체 보일러에서 생산한 난방열은 안양, 평촌 및 부천 등 신도시 주변지역 약 25만세대에 공급하고 있다.

GS칼텍스는 발전사업 및 지역난방사업의 핵심역량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발전소 건설, 신

회원사 소개

규 열공급지역 확대 등 전력사업의 확대를 이루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전력사업으로 성장 발전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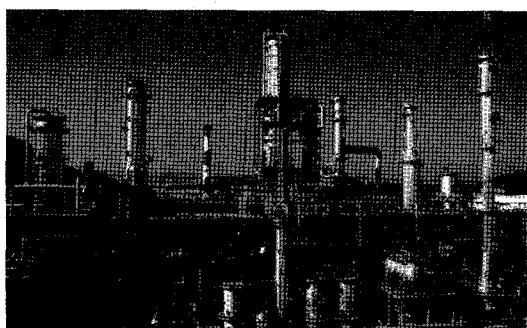
유전탐사 및 개발사업 진출

GS칼텍스는 2003년초 캄보디아 서부 해상 120km에 위치한 석유가스전 '블록A광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지분 15%를 취득하고 석유탐사 및 개발사업에 본격 진출하였다.

특히 1차 탐사기간 (2002.3~2005.3) 시추작업 중 5개의 탐사정에서 원유 함유층의 두께가 탐사정에 따라 41~139피트에 이르고, 시추된 원유는 API 44에 해당하는 양질의 경질 원유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GS칼텍스는 2005년 3월말부터 탐사2기 (2005.3~2007.3)에 진입하여 이를 5개 탐사정에 대한 정밀분석 및 추가 탐사시추작업 등을 통해 원유의 매장량 및 경제적 가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GS칼텍스의 유전개발사업은 1967년 창사이래 쌓아온 석유정제업의 노하우와 시장기반을 바탕으로 석유탐사·개발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에너지사업과 관련한 Value Chain을 수직 계열화함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종합에너지 서비스기업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석유



원유정제시설(CDU)

에너지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자주원유확보와 안정적인 석유에너지 공급에 일조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또한 GS칼텍스는 국내 종합에너지 선두주자로서의 역량과 국내외 주요 석유개발회사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성공 확률이 높은 석유탐사 및 개발 사업을 발굴,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개발 본격화

국제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원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국제간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GS칼텍스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료전지를 개발, 보급하고자 1989년부터 연료전지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연료전지 기술 개발은 GS칼텍스 종양기술연구소 및 2000년 11월 설립된 연료전지 전문 자회사인 GS퓨얼셀(주)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GS칼텍스의 자회사인 GS퓨얼셀(주)은 2004년 4월 3년간 5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1kW급 가정용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열병합시스템(RPG : Residential Power Generator)을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 이 연료전지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온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발돼, 가정에 온수와 전기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제품은 일반 화력발전소의 발전효율이 20%대에 머무르는 데 반해 발전효율이 최대 32%에 달하고 열회수 효율까지 포함된 총효율은 76% 이상에 이른다. 제품의 크기면에서도 가로 65cm, 세로 35cm, 높이 100cm 크기의 국내 최소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한다.

국내 연료전지 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2012년

가정용 연료전지 1만호 보급사업 계획과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법안에 근거한 1~10kW급 연료전지 보급 계획에 의해 연료전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 전

The Leader in Providing Total Energy Service는 GS칼텍스가 탁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종합에너지 서비스 업계에서 리더가 된다는 의미이다. Total Energy Service는 기존의 Total Energy에 Service라는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고객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Total Energy는 현재 영위하는 석유 및 석유화학사업을 바탕으로 도시가스 및 LNG, 전력 산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현재 연구단계에 있는 연료전지(Fuel Cell) 기술을 상업화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Service는 고객의 의미가 점차로 강조되는 환경에서 고객의 요구를 미리 반영하여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향후 에너지 시장에서는 석유제품과 도시가스 및 LNG, 전기가 서로 경쟁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에너지의 ‘맞춤 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이때 최적 에너지원들의 조합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가지고 에너지업계를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GS칼텍스는 이런 미래시장에서 최고가 될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 시대에서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e-Business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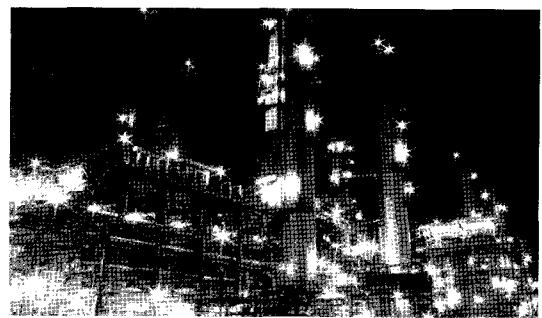
윤리경영

GS칼텍스는 1994년부터 ‘윤리구범 및 윤리규범 실천규정을 제정하여 남보다 앞서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윤리경영에 대한 회사의 방침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CEO인 허동수 회장의 자율준수경영방침 천명 아래, 2001년 2월 회사의 CFO를 자율준수관리자(Corporate Compliance Officer)로 선임하여 윤리경영을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Corporate Compliance Program)의 체계화 이의 근간이 되는 자율준수정책 (Business Conduct Policy) 및 자율준수업무규정을 제정하였다.

GS칼텍스는 이러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라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해’, ‘공정거래’, ‘성화룡예방’의 3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전임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학습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율준수편집’도 제작, 배포하여 임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부제보라인을 마련하여 전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반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사항의 조기발견과 해결은 물론 향후 재발방지 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공



파라자일렌시설(PX)

회원사 소개

정거래법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인사규정 내에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준수경영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GS칼텍스는 앞으로도 이러한 윤리경영의 바탕 아래 고객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21세기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이다.

연구개발

중앙기술연구소(VCC : Value Creation Center)는 1998년 대덕연구단지 내에 최첨단 연구시설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께 항상 새롭고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 에너지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고품질의 에너지 개발에 힘써 왔으며, 현재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미래의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한 대비와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제공하고자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폴리프로필렌과 방향족 등 석유화학 제품 및 자동차, 선박, 산업용 기기에 사용되고 있는 윤활유 제품의 품질개선과 신제품 개발을 지속해 오고 있다. 또한 생산 공정의 향상을 위한 공정 최적화, 물류 운영 최적화를 위한 SCM(Supply Chain Management) 개발 및 공정 촉매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VCC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향후 회사의 New Business Gener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항상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며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노력할 것이다.

환경활동 및 사회공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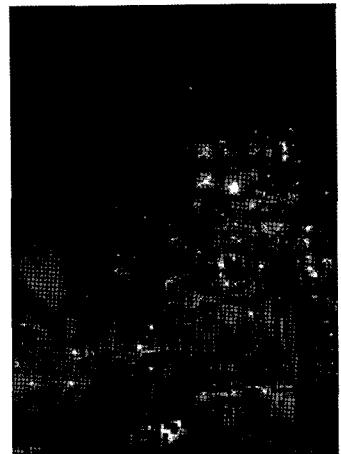
GS칼텍스는 환경안전선언문 제정, 환경방침 설

정, 환경관련 국내외 인증취득, 환경친화기업 3년 연속 지정 및 환경영영진단 실시 등 환경친화적 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또한 청정휘발유 KIXX와 환경성이 높은 PP 등 환경친화적 제품의 개발, LDAR(Leak, Detection & Repair) 시스템, 연료유 탈황시설, 환경오염 자동측정망 등 환경친화적 생산공정 개발, GS칼텍스 환경미술대회, 어린이글쓰기대회, 청정바다캠페인, 교육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 건전한 기업시민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여기에 벌맞추어 GS칼텍스의 환경안전보건경영 실적을 담은 '2004 GS칼텍스 환경영영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많은 고객분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GS칼텍스는 건실하게 쌓아놓은 환경안전 보건경영의 기반 아래 지속 가능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GS칼텍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단위 봉사단 위주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새로운 경험과 충만한 삶의 영위 및 지역사회와의 일원으로써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약 100여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 국가의 재해 발생시 구호 및 복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월 첫째주 수요일 약 1시간씩 여수공장 인근 지역의 쓰레기 줍기 및 해안지역 청소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



중질유분해시설(RFCC)